

재향군인회 임원 초청오찬 간담회

안보가 중요한 만큼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국방을 주도한다는 결의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때때로 저와 의견이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나라를 위해 움직여주시는 분입니다. 정작 모시고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국정이 버거워서 미처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신 것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섭섭할 때 보면 그렇지 않을 때 보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나라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빌리고자 모셨습니다. 이상훈 회장에서 파병문제를 중점으로 말했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듣고자 합니다. 국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누고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들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도 알듯이 평소에 안보나 외교관계에서 제가 기존의 흐름과 다른 시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여러분의 우려가 많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려에 대한 단단히 당부를 하고 다짐을 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상훈 회장의 인사 말씀 속에 무겁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이자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라는 권력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걸맞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 15년간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책임 없는 자리는 아닙니다. 정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주어진 임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약간씩 우려스러운 시각에 그런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8.15 축사에서 자주국방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말을 했는데, 말은 옳지만 미국과 어려워지지 않을지 우려할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걱정부터 들겠습니다. 미국과 갈등 없이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덩치가 커지고 경제도 발전해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 세대가 우리사회를 주도할 때를 대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적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자주적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주한 미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우리가 주한미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아우성치고 있어도 시기가 되면 갈뎨 갑니다. 90년대 가다가 북핵문제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부와 세세히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한미관계 한미동맹관계에서 여러 표현들을 보면 대북억지력 등으로 변화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언제 협의했는데 모르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은 제 지역 안정, 그기에 맞게 우리 국방구조를 갖추고 대비해야합니다. 기능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가 아니라. 정보의 획득력 분석력, 전략 등, 한국이 막강한 군사력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취약하니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덩치가 작더라도 눈, 코, 입이 제대로 기능하는 완전한 군대가 되어야지 눈과 귀를 다른 곳에 의존하고 주먹만 세어 선 안 됩니다. 그동안 미군이 간다고 해서 금방 가는 것은 아니지만 10, 20년 계속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어떤 지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안보에서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 안보의식 속에 주한미군 의존의식이 너무 큰 것도 위험합니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배치를 조금 움직이고 숫자가 조금만 줄면 심리적 공황상태로 가고 그것이 정쟁거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국방을 주도한다는 결의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집단안보체제는 아니지만 이상훈 회장이 얘기하신대로, 외국의 군대와 동맹관계를 통해 안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주국방의 구상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10년간 쪽 자주적 역량, 자력방위역량을 보완해 나가 주한미군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나가고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도 당연히 우리 힘으로 한다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핵무기개발이 안되겠지만, 핵문제 등이 있을 때는 별개지만 특별한 상황 있을 때 그때그때 해나가기로 하고 지금 예측한대로 움직이고 해나갑시다. 걱정은 되겠지만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틀렸다고, 머리를 바꾸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태세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안보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약속드립니다.

파병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상훈 회장이 언지시(인사말) 말했습니다. 이미 15일 집회를 통해 하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각 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관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었고 유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많은 의견을 또 들을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정치적 상황들, 이걸 내놓고 미국과 흥정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병의 시기와 성격, 규모는 물론 이것을 말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국제정치의 환경 속에서 가장 국가위신이 높아지고 국가이익도 최대한 높아지고 커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국내 정치입지를 가지고 시나 규모를 발표하지 않겠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 개인적 이해관계를 추호도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결론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진심을 믿어주시고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경제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많이 어지러운데 여러분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정치권만 혼란스럽지 국민들은 돌이켜 보면 나라는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86년, 87년, 88년, 이 지난 20수년 동안 경제가 대호황이었습니다. 최고의 경제 성장 이뤘습니다.

기억해 보면 85년 2.12 총선부터 8.3사채동결조치 84, 85, 86, 87, 88 이 시기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면서도 경제는 잘 잡혔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경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300만 명이 신용불량자다.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 인게 언제 있었습니까. 얼핏 보면 실업자 300만 명이 낫지 신용불량자 300만 명은 정말 어렵습니다. 실업자는 가만히 있지만, 신용불량자는 전화가 옵니다. 집으로 매일 돈 내라고 독촉장 날아오는 이 상황에서 경제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극약을 쓰자면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2001년에 써서 지금은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극약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극약이 있다 해도 전 세계 어느 경제학자가 와도 경기를 금방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체질을 바꿔가야 합니다. 없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약이나 처방이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지 정치한다고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을 하시니 이미 재신임은 걸어 놓았지만 재신임에 일체 힘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제 일을 하겠습니다.

정치, 아니 행정 챙기고, 행정 또박또박 챙기고 경제정책, 민생정책, 안보정책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신임 때 좀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져서 일체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에 중심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국회에서 옥신각신 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어느 해 국정감사에서나 없었던 적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할 때 하면 됩니다.

지금 옥신각신 싸우고 국민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사 결과는 곧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것 놓고 할 때 하면 되는 것이니, 그동안은 정쟁을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취지는 다시 말하면 지루하고 구차해 질 것이니 취지를 잘 이해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주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불신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달리 별수 없으니 밋지만 그냥 해주십시오. 힘들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가 뭘지 생각할 것 없이 그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할지 몰랐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복잡해진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중간평가, 재신임, 하야, 탄핵이라든지 대통령 자리를 내 놓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주장이 수없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재신임 받겠다고 하면 시끄러운 것이 좀 조용해 질 줄 알았습니다. 좀 명쾌하게 될 까 싶어서 내 놓았는데 이렇게 되니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야당이 너무 뜻밖에 반대해서, 처음에는 찬성하시더니 다시 반대해서 시끄럽습니다. APEC 갔다 와서 야당대표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어찌 결말을 해야 할지 협의해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기왕 대정부 질문이 있으니 이것이 끝나면 여야대표 모시고, 여는 없습니다. 정당대표를 모시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하겠습니다. 혹시 갔다 오는 동안 지지도 뚝 떨어지면 또 하자할지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 나도, 모든 정당이 다 반대하는데 저 혼자서 강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오래 걱정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타결 짓고 국정이 잘 갈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